

‘보랏’ 1천만 고지 눈앞 “에~ 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식지 않는 인기 950만명 넘겨 박스오피스 역전 흥행 이어가 외신들 한국서 부는 열풍 조영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사진)가 1천만 고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6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보헤미안 랩소디’는 ‘PMC: 더 벙커’를 제치고 3위를 기록했다.

총관객 수는 954만7400명. 1천만명까지는 45만명가량 남았다.

최근 이 작품 평일 관객 수는 3만명 선, 주말 하루는 7만명 수준이다. 오는 9일 ‘말모이’ ‘내 안의 그놈’ ‘그린북’ 등 신작이 일제히 개봉하는 대목이 변수지만, 1천만 돌파 가능성은 열려있다.

극장 관계자는 “이번 주 개봉작들의 흥행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신작들 속에서도 장기상영되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1천만명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보헤미안 랩소디’가 1천만 고지를 밟으면 역대 23번째, 외화로는 6번째 ‘1천만 영화’가 된다. 외화 가운데 1천만명을 돌파한 작품은 2009년 ‘아바타’(1362만명),

2014년 ‘인터스텔라’(1027만명), 2014년 ‘겨울왕국’(1029만명), 2015년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1049만 명), 2018년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1121만명) 5편이다.

◇ ‘보헤미안 랩소디’가 세운 기록들
지난해 10월 31일 개봉한 이 작품은 이미 각종 기록을 새로 썼다.

역대 음악영화 가운데 최고 흥행 타이틀을 거머쥐었고, 킨 본고장인 영국 매출도 뛰어넘었다.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은 한국이 6995만 달러(786억원), 영국이 6120만 달러(687억원)였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북미를 제외하고 이 작품을 가장 많이 본 국가다.

역대 1천만 영화들과는 다른 흥행 추이를 보인 것도 의미가 있다. 통상 1천만 영화들은 개봉 첫 주말에 하루 100만명씩 동원하며 폭발적인 흥행세를 보인다.

반면, ‘보헤미안 랩소디’는 개봉 4주 차 주말(11월 24~25일)에 가장 많은 관객(76만5784명)을 불러모았다. 박스오피스 순위 역시 2위로 출발했다가 뒤늦게 1위에 올랐다. 겨울 신작이 쏟아진 성탄절에는 6위로 밀렸으나 다시 3위로 오르는 뒷심도 발휘했다.

◇ 외신도 주목한 ‘한일 열풍’

전설의 록밴드 퀸과 리드보컬 프레디 머큐리 삶과 노래를 그린 ‘보헤미안 랩소디’ 흥행은 ‘퀸 신드롬’으로 이어졌다. 킨 명곡들이 음원차트에 진입했고, 음반도 다시 팔려나갔다.

이런 현상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다. ‘보헤미안 랩소디’의 일본 내 매출 역시 6389만 달러(718억원)로 영국을 앞섰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3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의 ‘보헤미안 랩소디’ 열풍을 조망하는 기사를 실었다.

이 신문은 일본발 기사에서 “이 작품이 두 나라에서 전 국민의 문화적 몰입대상(obsession)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에선 영국을 제치고 두 번째로 많은 티켓이 팔렸고, 사진전을 비롯해 킨과 관련된 각종 행사가 전국에서 열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 킨 노래가 TV나 광고, 리얼리티 쇼를 장식했으며 주요 방송곡들은 1985년 열린 ‘라이브 에이드’ 공연을 재방송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선 회사 식당이나 술집, 음식점 등에서 사람들이 이 영화를 대화 주제로 삼고 있다. 이 작품을 두 번, 세 번 보는 것은 특별한 일도 아니며, SNS에는 킨 음악에 빠졌다는 고백이 이어진다.

연합뉴스

중년 배우 박정수·김보연·박준금 할리우드에서 배우인생 2막 도전

tvN 새 예능 내달 3일 첫방송

중년 여배우 3인이 할리우드에도 도전장을 내민다. tvN은 박정수(66), 김보연(62), 박준금(57) 중년 배우 3인방이 할리우드 데뷔하기까지 분투를 담은 ‘할리우드에서 아침을’을 내달 3일 방영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이들이 영어 공부에 몰두하는 것은 물론, 할리우드 캐스팅 디렉터와 에이전트에게 보낼 셉트 테이프 제작에 직접 나서는 모습 등을 담을 예정이다.

배우들의 도전을 지원할 매니저로는 방송인 유병재와 박성광, 봄이 짝을 이룬다.
다음 달 3일 오후 6시 10분 첫 방송. /연합뉴스



박정수(왼쪽)와 매니저 유병재

이순재, ‘인간극장’서 아내 첫 공개

KBS 1TV 오늘부터 5부작 방송

KBS 1TV는 7일 방송할 ‘인간극장’ 신년기획에 현역 최고령 배우 이순재(84)가 출연한다고 4일 예고했다.

방송에서는 이순재의 63년 연기 인생을 되짚어본다. 그가 연기를 시작한 건 서울대 철학과 재학 시절인 1956년 연극 ‘지평선 너머’부터다.

이후 1991년 김수현 작가의 ‘사랑의 뒤흔들’ 속 대박이 아버지로 연기의 전환점을 맞았고, MBC TV 시트콤 ‘하이킥! 시리즈’에서는 코믹 연기까지 선보이며 국민 아버지에서 더욱 친근한 캐릭터로 변신했다.

특히 이번 방송에서는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아내 최희정(79) 씨가 출연한다. 1966년 이순재와 결혼해 50년 넘게 남편을 내조한 최 씨는 남편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줄 예정이다. 7~11일 오전 7시 50분 방영. /연합뉴스



김보연(오른쪽)과 매니저 박성광



박준금(오른쪽)과 매니저 봄

‘스타메이커’ 디자이너 하용수 별세

패션디자이너이자 영화배우로 1990년대 ‘스타메이커’로 불렸던 하용수 씨가 5일 별세했다. 향년 69세.

패션계에 따르면 하씨는 간암 투병 중 이날 새벽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하씨는 1969년 TBC 공채 탤런트 7기

로 데뷔했다. 이장호 감독이 연출한 흥행작 ‘별들의 고향’(1974)을 비롯해 ‘혈류’, ‘물보라’, ‘명동에서 첫사랑’ 등 15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했다.

하씨는 1974년 진태욱 디자이너 패션쇼 연출을 맡은 것을 계기로 패션계에도 발을 들여놓았다. 1986년 의류업체 베



이직을 세운 뒤 닉스, 클럽 모나코 등 여러 유니섹스 브랜드를 디렉팅했다.

영화의외상감독으로도 활동해 1991년 춘사영화제, 1992년 대중상영화제에서 의상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살맛나는 세상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차달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이상한 나라의 머느리 스페셜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다큐 공감(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동네변호사 조들호 2 -죄와 벌 미리보기(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신년기획 영화가 좋다	00 12 MBC 뉴스 25 언더나인틴 1~2부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쏙쏙 55 KBC특집 파워인터뷰
1	00 넷워킹기획 문화산책 50 연중기획 -빛고를 행복아카데미	15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50 전라도 매력(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40 공감다큐, 사람(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뿌까 55 뽀빠 뽀뽀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꾸러기 식사교실(재) 55 5 MBC 뉴스	00 토크콘서트 화통(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살림하는 남자들(재)	15 MBC플러스특선 대한외국인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복수가 돌아왔다(재)
7	00 KBS 뉴스 7 40 우리말 겨루기	50 원소집이 아내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리랏다 3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30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브24 55 제보자들	55 차종우돌 전국 유망기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55 나의 독립 영웅 <허은>			
10	00 가요무대	00 동네변호사 조들호 2:죄와 벌	00 나쁜형사	00 복수가 돌아왔다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10 안녕하세요	10 MBC 스페셜 <임시정부 100주년 특집>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부
12	40 KBS 뉴스 50 이웃집 찰스(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20 나쁜형사(재)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띠띠뽀 띠띠뽀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1~5
06:00 한국기행(재)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9:00 몬카트
06:20 세계테마기행	13:00 다큐 오늘	19:30 EBS 뉴스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3:10 고양이를 부탁해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7:30 띠띠뽀 띠띠뽀	13:40 배워서 남줄(재)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명 유치원1~2	14:30 몬카트(재)	<신화의 땅 아틀라스 1부 거인의 어깨에>
08:30 고고다노 공룡탐험대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15 파프리카	<괜찮아, 겨울이야 1부 겨울, 눈꽃길만 걸어요>
09:00 뽀로로와 노래해요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1:50 EBS 다큐프라임-신년특집 교육대기획
09:30 우리는 비트로스터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미래학교>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6:15 똑딱맨	22:45 우리 가족 거리 좁히기-부모성적표
10:30 한국기행(재)	16:30 방귀대장 뽀뽀이(재)	23:55 배워서 남줄(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6:45 당동명 유치원1~2(재)	
	17:15 마사와 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p>36년생 순발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48년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때이다. 60년생 중간 점검이 성과를 보장하게 될 것이다. 72년생 무의식적인 실수가 판국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 84년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보전할 수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82, 05</p>	<p>42년생 뻥치 아는 길도 물어가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54년생 안배와 활용을 잘 해야 하겠다. 66년생 철저히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78년생 형식과 내용을 두루 살펴야 하느니라. 90년생 매우 강도 높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니 안전장치가 시급하다. 행운의 숫자 : 47, 17</p>
<p>37년생 공을 들여왔다면 긴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이다. 49년생 발돋움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한다. 61년생 부담이 따를 수 있으니 각오하라. 73년생 경직되어 있지는 않은 지 살펴 볼 일이다. 85년생 처음부터 끝까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87, 71</p>	<p>43년생 가장 일반적인 것에 정답이 있음을 간과하지 말라. 55년생 자신감을 가져라. 67년생 흥기가 왕성하니 오래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 79년생 일관되지 못하다면 허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91년생 새로운 일이 생길 나 진행하기에는 이르다. 행운의 숫자 : 56, 44</p>
<p>38년생 함께 할 일에는 빠지지 말고 반드시 동참하자. 50년생 모든 일에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62년생 함성으로써 정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4년생 방심한다면 공든 탑이 무너질까 두렵다. 86년생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제대로 해야 언겠다. 행운의 숫자 : 24, 08</p>	<p>44년생 천우신조써 대길 하는 운세이다. 56년생 면밀하게 살피지 않으면 중차대한 것을 놓치게 됨을 알라. 68년생 세부적인 내용까지 갖춰야겠다. 80년생 이해와 배려가 따른다면 파생 효과가 크다. 92년생 아무 상관도 없는 일에 쉽게 연루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9, 14</p>
<p>39년생 기본 구조를 잘 이해한다면 차질이 없으리라. 51년생 애매하다면 아예 여지를 두지 않는 편이 낫겠다. 63년생 지리멸렬한 소감상태로 정제 되는 판국이다. 75년생 예상과는 달리 뜻대로 되지 않겠다. 87년생 시도한다면 다양하게 접해 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9, 92</p>	<p>45년생 내부적인 효율 판단이 우선 되어야 한다. 57년생 한 톨모도 늦추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 69년생 하나의 기쁨과 함께 또 다른 부담감도 생긴다. 81년생 순조롭다고 인식할 때 복병을 만나기 쉽다. 93년생 제안사가 서서히 풀려 나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9, 42</p>
<p>40년생 만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다면 더 좋다. 52년생 해결점을 찾으면서 난맥상을 벗어나는 판세에 놓인다. 64년생 상대의 정을 들어 주는 것도 괜찮다. 76년생 기대하지 않음이 옳다. 88년생 이루어 놓고 말해도 늦지는 않으니 입을 꼭 다물어라. 행운의 숫자 : 63, 47</p>	<p>34년생 진행 방향은 다르지만 결과에는 차이가 없다. 46년생 번거롭더라도 원칙과 체계에 따르는 것이 연속성을 담보한다. 58년생 분주할 것이다. 70년생 현혹되지 말고 자신의 뜻대로 처리함이 맞다. 82년생 파상적인 현상일 뿐이니 무시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98, 12</p>
<p>41년생 상서로운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느니라. 53년생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만 난국을 풀 수 있을 것이다. 65년생 알고 있어야 피해갈 수 있다. 77년생 벼락 치게 서둘러야만 겨우 이룰 수 있을 것이다. 89년생 바라던 일이 이루어져서 몹시 기뻐한다. 행운의 숫자 : 38, 61</p>	<p>35년생 다 함께 모여서 진지하게 논의 한다면 이루어질 수 있다. 47년생 절실한 동세이니 적극적으로 응해 줘야 한다. 59년생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방법이 무너질리야 한다. 71년생 길경이 더 많이 안심하고 보내도 된다. 83년생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0, 25</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사랑” ☎010-9790-8237